

기윤실 바른가치세미나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100주년사회봉사관 예배실

# I am what I eat :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성영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sup>1)</sup>

중세 때는 성(聖)과 속(俗)이 구별되어 있었고, 영적인 일이 아닌 일상의 일들은 당연히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기운실에서 주관한 이 바른가치세미나에서 “일상,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살펴보게 된 것은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큰 선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에서는 신자 각자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루터는 우리를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일이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일상의 일들이 신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됨으로써 이제 신자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신자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와 관련된 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먹을 것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먹을 것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저는 먼저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로부터 출발해 보려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왜 먹어야 하는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해방된 현대인들은 이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잘 먹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소위 각종 ‘먹방(먹는 방송)’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건강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매달리는 한국 사회를 보며 먹을 것의 문제를 과학자이자 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 ‘먹는다는

---

1) 성영은 교수는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연료전지, 배터리,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썼다. 신앙과 과학에 관한 저서로는 『케플러 신앙의 빛으로 우주의 신비를 보다』(성약, 2011), 『창세기 1장으로 본 과학』(성영은, 베른 S. 포이트레스, 코넬리스 반 담 공저, 성약출판사, 2015)이 있다.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운실에서 강의를 부탁할 때 받은 제목입니다. 그 유래가 궁금하여 찾아봤더니 내가 받아먹은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로마가톨릭의 화체설이 그 유래라는 말도 있고, 프랑스의 법률가이면서 정치가인 앙텔름 브라야 사바랭(Jean Anthelme Brillat-Savarin)이 1826년 『맛의 생리학』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Tell me what you eat and I will tell you what you are)'고 말한 것이 그 유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세미나 첫 번째 강사였던 강영안 교수님으로부터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 1804-1872)가 처음 한 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Der Mensch ist, was er ißt. Man is what he eats)'라고 했을 때 포이에르바하의 의도는 사람이 먹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유물론을 주장하려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이 말을 차용하여 먹는 것과 우리 몸(건강)과의 관계를 통해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기농이나 친환경 운동 등에서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비슷한 제목의 음식 다이어트 방송 프로그램이 상영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포이에르바하가 강조한 유물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인간을 물질로 보는 그의 유물론적인 사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대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인간을 물질로 이루어진 몸으로 봅니다. 대체로 영혼은 부정하고 대신 마음이나 정신은 몸이라는 물질에 따라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은 인간을 깎아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로 인류는 원숭이와 같은 부류로 여겨진다. 신경과 의사는 영혼의 병을 약물로 고친다. 의학의 차원에서 정신은 점점 더 신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진다. 과학이 발전해 나아갈수록 인간은 점점 더 동물과 비슷해진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도대체 '동물인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까닭은 무엇인가?...'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는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다. (파스칼 피크, 장 디디에 뱅상, 미셸 세르 (배영란 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알마, 2003), 5-6쪽)

사상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먹는가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자는 좋은 이야기 정도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경을 알고

나면 보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다른 신앙인들은 한층 더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먼저 현대과학이 밝힌 ‘내가 먹는 것’과 ‘나의 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성분들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에 있는 화학성분을 3천만가지나 찾아내었고,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하면 카페인이 딱 떠오르지만 커피는 카페인 말고도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식초), 아세톤, 아세틸 메틸 카르비놀, 아세틸 프로피오닐, 암모니아, 크레졸, 디아세틸, 디에틸 케톤 등등 100~700여 종류의 낮은 화학물질(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유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커피 속에는 인체에 유익하다 알려져 있는 물질들도 있지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들도 다수 들어 있습니다. 수백종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좋은 성분을 강조하면 좋은 음료가 되고, 나쁜 성분을 강조하면 마시면 안 되는 독극물이 됩니다. 커피 예찬론자들은 커피 속의 폴리페놀 성분들을 부각시켜 커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최근 커피 속의 미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부각되어 커피가 발암 물질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인 속의 에탄올은 발암물질로 규정되었지만 그 속의 항산화제는 칭찬받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수많은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성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식품이 되기도 하고 나쁜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식품이 마치 특효약처럼 유행을 타기도 하고 또 유해 논쟁에 휩쓸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 속에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 문제는 조금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우리 몸은 약 40~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뇌와 신경계 같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3~5개월마다 이 세포들이 다 교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몸의 원자 분포는 산소 56~65%, 탄소 20~28%, 수소 9.3%, 질소 2%, 칼슘 1.5%, 염소 1%, 인 1%, 기타 1.1%(황, 철, 아연 등)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가 모여 이루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분자 분포로 보면 우리 몸은 물 65~70%, 단백질 15%, 지방 13%, 기타 무기염, 탄수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산소, 탄소, 수소라는 원자로, 또 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자연의 다른 생명체나 심지어 무생물과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몸은 수만 종의 ‘효소’라 불리는 단백질에 의한 끊임없는 화학반응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은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deoxyribonucleic acid의 약자, 디옥시리보핵산)라는 물질의 유전자 정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효소를 돕는 조효소로 비타민과 금속성분(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 화학반응을 위한 에너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3대 영양소라

부름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먹는 식물과 동물로부터 옵니다. 과학의 탐구로 발견된 사실을 보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유물론적인 관점이 꽤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과학이 먹는 것의 성분을 밝히면 밝힐수록, 인간의 몸의 비밀을 밝히면 밝힐수록, 또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먹는 것들을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내 몸과 내 몸을 이루는 먹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도 이런 흐름을 역행하며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는 이 유물론적인 관점의 인간관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질문을 바꾸어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 나의 몸이 정말 나의 전부’일까요? 신자인 우리는 인간을 몸이라는 물질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14:17)”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신자는 내 몸과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한발 물러서서 우리 시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모름지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성경으로 먹는 것과 관련된 과학과 또 이 시대의 먹는 문화를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2.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식물(植物)을 우리의 먹을 것(食物)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食物)이 되리라 (창1:29).” 그런데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신 일은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식물이라는 ‘생명’을 죽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식물도 동물과 똑같이 DNA에 의해 동일한 생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식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한 세기 전 『곤충기』로 유명한 신앙인 파브르(Jean Henri Fabre, 1823-1915)는 ‘식물과 동물은 형제다’라는 시각으로 『식물이야기』를 썼습니다. 식물을 관찰하면 비록 동물처럼 눈과 코, 손과 발은 없지만 생명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생명체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9을 근거로 채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더 맞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육식이나 채식이나 생명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는 근거는 무엇을 주시든 오직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셨기에 그에 순종하여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했습니다(딤후 1:4). 타락 이전이든 타락 이후든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 해서 먹고 또 먹으라고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타락 이전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에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식물의 지위와 역할은 인간을 위해 희생을 할지라도 아름답고 고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태도는 타락 이후 먹을 것으로 주신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먹이의 먹힘은 자신의 존재를 박탈당하거나 착취당하는 희생과 폭력인가, 아니면 그 존재와 역할이 생물의 생존을 위한 것이요 따라서 먹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가? 즉 자신을 먹이로 제공함으로써 고귀한 존재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것을 살리는 고귀한 원리가 선한 창조 질서에 처음부터 포함되었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먹고 먹히는 것에서 받는 잔인한 느낌 등 부정적인 인상은 본래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된 정상적인 질서가 범죄 후에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식물의 먹힘은 존재의 소멸을 뜻한다기보다 일련의 순환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번식과 성장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내지 회생(回生)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먹고 먹힘을 비윤리적이며 악하다고 느끼는 것은 먹는 행위가 타락한 피조물에게서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며, 남을 삼켜 내가 살고자 하는 이기적 행위로 변질된 것이 역으로 투사되어 먹음이나 먹힘을 다 같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을 것이다. (김성수, 『태초에』 (마음샘, 2009), 201쪽)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먹는 것의 영역에 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전체가 땅의 영양분이 결핍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된 사실을 알려 줍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창3:17-19).” 이런 형편에서도 인간의 타락은 그칠 줄 몰라 결국 노아의 방주 한 척에 탄 생명 외의 이 땅의 생명 모두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이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활을 베풀어 식물 뿐 아니라 이제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食物)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9:3).” 동물 역시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순종하여 오늘도 일상으로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먹는 일상을 믿음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채식만이 옳다느니 육식은 안 된다느니 하는 태도는 신자가 취할 정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런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는 먹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동시에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생명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식물과 동물, 나아가 세상 전체를 잘

돌보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롬8:1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는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동물에게라도 잔인한 일은 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신14:21).” 더 나아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11:6-8).”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넓고 깊음을 생각할 때 신자라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늘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자연은 선하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비참해진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과학은 타락의 결과 비참해진 창조 세계를 자연의 원래 모습이라고 규정합니다. 생존 경쟁 자체를 자연스럽고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동물처럼 달아날 수 없는 식물의 경우 방어 무기로 독이나 가시 등을 만듭니다. 미생물과 각종 동물들은 식물을 공격합니다. 이에 저항하여 식물은 각종 독소를 뿜어냅니다. 나무들은 외부의 공격에 맞서 각종 독극물들의 집합체인 피톤치드를 내뿜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내뿜을 때는 그 양이 많지 않아 우리 몸의 미생물만 죽이는 정도에서 그쳐 삼림욕으로 즐길 수 있지만, 그것도 농축하면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독극물이 됩니다. 동물들은 또 어떤가요? 밤낮없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고달픈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연 전체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처럼 고달픈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이 생존 경쟁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롬8:19-22).

같은 양일 경우 아직까지 인간이 만들어 낸 그 어떤 독(毒)도 자연의 생명체가 뿜는 독(毒)의 독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쥐의 치사량을 기준으로 볼 때에, 파라티온(E-605)이라는 인공 합성 살충제에 비해 무스카린이라는 느타리버섯의 독은 16배, 테트로도톡신(복어 독)은 360배, 타이폭신(뱀 독)은 1,800배, 리신(아주까리 식물의 독)은 36,000배, 마이토톡신(화초의 독)은 72,000배입니다. 보톡스라는 주름살 치료제로 유명한 보툴리눔독신이라는 박테리아의 독은 1.2억 배나 독성이 강합니다. 식물 추출액으로 만드는 천연 농약이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해하다는 주장은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천연 농약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체들 역시 사람이 만든 농약과 같은 그 강한

독성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식물에서 이처럼 강한 독성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원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 자연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 식품’ 또는 ‘천연 식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과연 건강한 영양소를 생산해야만 하는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그 반대다. 모든 동식물은 생존 본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몸 그 어떤 부분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온갖 대비책을 마련한다. 유일한 예외는 과일이다. 과일은 본래 다른 존재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한다. 큰 동물이 과일을 먹는 것은 오히려 그 식물의 이익을 위한 일이 된다. (물론 작은 동물이 과일을 잡아먹는 것은 예외다.) 그래야만 씨앗이 동물의 배설물, 즉 좋은 비료를 통해 가급적 널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일에서 단맛이 나고 독이 들어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적 영농법은 양배추와 감자의 독성을 중화해 인간의 영양에 유용한 식물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끓이는 요리법은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음식 재료를 아무 근심 없이 익혀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뜨거운 열은 여러 가지 독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200밀리그램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성 솔라닌이 들어 있는 감자도 끓이면 그 독이 없어진다. 이제 그 누구도 독이 들어있는 보리, 밀, 호밀을 날로 먹지 않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몸에 이로운 것으로 홍보되어 온 잡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완전 영양 식품’은 계속 먹을 경우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롭다. ‘완전 영양 식품’과 ‘생식(生食) 식품’, 그리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야생초는 인간의 음식으로서 즐기기에 부적합하다. 야생초는 오히려 의약품으로 보아야 하며, 적은 양의 처방을 해야만 그 독성이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테틀레프 간텐, 토마스 다이히만, 티로 슈팔 (안성기 역), 『지식』 (이끌리오, 2005), 698쪽)

자연은 영양소의 측면에서도 결핍이 심합니다.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 중 철, 칼슘, 황은 땅에 충분하나 질소, 칼륨, 인산, 마그네슘은 부족하여 인위적으로 공급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많으나 너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직접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에서 공기 질소를 깨트려 사용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번개와 콩과식물(콩, 토끼풀 등)의 뿌리혹박테리아에 의한 분해 밖에 없습니다. 혹은 새나 동물의 배설물인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이유로 낮은 농업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대체로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데 1918년 독일의 하버가 공기 질소를 깨트리는 화학적 방법을 발견하여 화학비료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 증가하는 인구의 부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유기비료나 인공비료의 구분 없이 이 질소로 이루어진 ‘질산암모늄’이라는 화학성분은 귀한 영양분



이 됩니다. 현재 지구 육지의 3%에서 농업이 가능하다 합니다.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는 과일의 80%, 곡물의 50%까지 그 소출의 감소가 예상된다든 통계도 있을 정도로 자연은 그 결핍이 심합니다.

식물을 탐하는 곤충은 30만종쯤 된다 합니다. 여기에 미생물, 동물, 심지어 인간도 식물을 공격합니다. 이에 식물은 각종 독성 물질을 발산하여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식물을 먹기 좋게 품종 개량으로 식물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약화시켰습니다. 인간은 현재 200여종의 식물의 품종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량해 인간의 음식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격에 대한 이 식물들의 방어 능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방어 능력을 상실한 식물은 인간이 농약 등으로 외부의 공격을 인위적으로 막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식물이 된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동물의 30여종이 품종 개량되어 가축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 가축들은 외부의 공격에 이주 취약하여 인간이 각종 약으로 보호해 줘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품종이 개량된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는 농약이나 살충제는 대체적으로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이 만들어 낸 독이 그것들입니다. 살충제의 성분인 차나무의 에티르유는 곤충이나 미생물 습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피레트린, 로테논, 알칼로이드 등 살충제는 식물에 함유된 물질입니다. 미생물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독소도 살충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이라 해서 결코 더 무해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이 세상에는 감염성 세균이나 곰팡이가 많습니다. 첨가제 없는 자연 상태의 식품 소비와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는 늘 긴장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허가된 식품 첨가제는 610여종에 이릅니다. 이중 80% 이상은 천연물질로 자연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첨가제로 들어가는 방부제, 살균제, 보존제, 소독제, 향산화제(산화방지제)는 서로 비슷한 기능으로 구분이 모호합니다. 대체로 방부제는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방어물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르빈산(장미과 식물 열매), 벤조산(안식향산, 동백나무),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비타민E(토코페롤), 에르소르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상추, 시금치, 양배추, 케일 등에 많이 들어 있음) 등이 그 예입니다. 첨가제를 천연과 화학적 첨가제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허용치는 대량생산 및 유통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정한 현실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식물이나 동물의 품종을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임의로 돌연변이를 시키거나 교배를 통해 개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DNA 구조를 이해하고 또 DNA 일부를 자르고 붙이는 생명공학 기술을 확보하면서 정교한 선택적 유전자 변형을 통해 원하는 품종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라 부릅니다. 유전자 재조합, 혹은 변형 기술은 현재 생명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은 인간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대장균 DNA에 넣어 대장균에 의해 대량 합성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돼지 250마리당 1g의 인슐린 밖에 추출하지 못해 특정 소수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당뇨병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곰팡이 유전자 일부를 넣어 벌레 먹는 것이 방지된 면화, 사막식물의 유전자가 더해져 가뭄에 잘 견디는 옥수수, 해충에 강한 콩 등이 이렇게 만들어진 GMO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GMO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약 사용 감소라는 장점을 부각하는 측과 인체 유해 가능성, 생태계 교란 가능성, 씨앗의 대기업 독점 문제를 부각하는 양측의 치열한 논쟁과 대립 하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축 사육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장면을 듣거나 본 사람들은 차라리 채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입니다.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나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식물의 생산성을 늘이거나 보관기간을 늘이기 위해 방부제나 농약을 남발하거나 가축의 식품으로서의 품질과 사육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데는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거리에 관한 한 농약, 비료, 항생제, 성장호르몬, GMO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공식품, 가공식품을 양산해 낸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 인공적인 식품은 불안하고, 자연은 선하고 깨끗하기에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은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틀린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죄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자연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자연을 오염시켰습니다. 농토는 우리에게 식량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식물과 생명체는 각종 독소를 뿜어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만든 어떤 독(毒)도 자연이 내는 독(毒)의 독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선하지 않지만 자연도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친환경, 친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세상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체가 만든 자연의 독을 분석하여 약이라는 이름으로 합성하여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또한 익혀 먹는 요리법을 통해 식물들의 독성을 제거합니다. 과학은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 중에 인류의 타락 이후 이 땅에 결핍되어 왔던 질소와 칼륨, 인산, 마그네슘 등을 인공 비료라는 이름으로 합성하여 공급합니다. 아울러 생물체 내의 독성을 찾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의약품과 농약, 각종 첨가제(식품 첨가제, 방부제, 살균제, 소독제, 향산화제 등)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먹기 좋게 독성을 제거한 식물들이 200여 종에 이르며, 농약이 이 식물들을 공격하는 벌레나 곤충들을 제거해 줍니다. 첨가제도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의 식품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대과학의 갖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하심으로써 76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인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점을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신자만이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이 땅에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4. 먹는 일상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

##### (1) 유사(類似)과학에 의존하지 말자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과학을 우리 시대의 교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무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히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양을 잘 알아 그 교양을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면서 건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신자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는 배치됩니다. 웬일인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먹는 것과 건강’에 관하여는 과학을 무시하고 소위 유사과학(경제과학, 사이버과학)에 더 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확인 할 수 없는 영역을 총칭하여 ‘유사과학’이라 부릅니다. 과학이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지 않고 서양에서 들어온 탓인지 우리 주변에는 이 유사과학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교, 도교, 또는 무속 종교 등의 종교 혹은 사상의 영향으로 이 유사과학이 과학보다 더 우대받는 일이 우리 사회 도처에 가득합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 과학적 진리가 절대적이지 과학적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는 변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비진리가 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쉽게 결론내리고, 더 쉽게 이해되고 친숙한 유사과학을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히려 유사과학의 미신적이고 비진리적 요소가 훨씬 심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교양을 중시한다 할 때 그 과학의 진리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비교적 건전하게 살아 어떻게든 주의 복음이 우리로 인해 막히지 않고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학은 먹거리에 관해 어떤 신비로운 식품이나 식이 요법, 영약(靈藥)은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단번에 다 해결되는 기적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현재 지구 전 인구가 먹고 살기 힘든 이 땅에서 다 같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각종 농업이나 목축 기술, 식품가공기술, 의약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 전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히 먹는 것을 제공하여 음식 문화 등을 발전시키는 일을 도와 먹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런 과학의 활동은 건전하고 상식적이어서 우리 신앙인이 비교적 따를 만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유사과학의 주장들에 귀를 기울여 동분서주 하는 것은 건전한 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먹는 것과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 근거가 약한 과장된 주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식품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특정 식품

이 갑자기 영양이 됩니다. 정당한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이 무시됩니다. 또 ‘채식이 우수하다’, ‘우리 조상들의 식단이 우수하다’, ‘가공식품은 먹어서는 안 된다’, ‘자연식품을 먹어야 한다’, ‘생식은 영양이 살아 있다’ 등도 마찬가지로 비판합니다. 현미든 오곡이든, 무엇이 몸에 좋다 하면 우르르 따라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사과학은 다분히 비과학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다분히 비기독교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관을 답습한 것이 다수입니다. 여기에 동양의 범신론인 불교나 외국의 타 종교의 종교 습관이 적절히 포장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유사과학을 추종하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유사과학의 주장 자체가 제한된 경험에 근거한 신념에 가깝기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 (2) 먹는 것을 절제하자

우리는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켓에 가면 전 세계에서 들어온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들이 가득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길거리마다 음식점들이 넘쳐납니다. TV를 켜면 또 어떤가요? 온통 먹방(먹는 방송)입니다. 카톡 대화방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도 맛집이나 먹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온통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한 것을 먹으려는 것이 우리 시대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맛과 영양 추구가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너무 기름지게, 너무 달게,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이 시간, 지구 다른 한 편, 아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북쪽에서는 굶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인 식물과 동물이 심하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중세 수도사들처럼 한 끼나 두 끼 먹는 운동을 벌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물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나의 몸이나 건강 문제를 음식물 탓으로 돌리고 해당도 먹는 것에서 찾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과식, 편식, 운동 부족을 탓하지 않고 먹는 것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맛과 감칠맛에 빠져 많이 먹고 즐기는 현대인의 악습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이런 태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로마인들은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 먹은 것을 토하고 또 먹었다고 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여도 한국인은 쌀이 부족하여 소화가 잘 안 되는 맛있는 현미나 거친 오곡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현대 한국인들은 포만감은 느끼면서 살은 찌지 않으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친 현미나 오곡을 건강식이란 이름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적 복을 구합니다.

신자라면 이 풍요한 시대에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께서 주신 것을 먹되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하여 먹어도 먹지 않은 자처럼 소박하게 먹고 또 주님만 의지하여 절제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먹는 것은 다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동식물과 피조물들입니다. 낭비 없이 절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먹는 것 앞에서도 한국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이교사회로 남아 있었던 이 땅에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일상을 살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안에 이 먹는 문화가 들어갑니다. 주일 교회 식사, 교회 행사, 구역 예배, 신자들 간의 친교의 식사, 신자의 가정에서의 식사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새로운 먹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3) 지나친 깨끗함을 자제하자

화학비료와 농약, 첨가제나 항생제 사용, 그리고 GMO(유전자 재조합 생물체)를 먹는 것에 대한 큰 위협으로 여겨 반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남용에 반대하고 잘 감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먹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도 잘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자연은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은 오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음식물로 제공되는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맛있고 많이 잘 먹으려는 우리의 식생활, 더 나아가 인간의 탐욕이 동물과 식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깨끗함의 추구가 우리의 삶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바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일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식품에서 기생충이라도 한 마리 발견 되면 상품 전체를 폐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 등에서 보듯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시초부터 불쌍한 동물들 전체를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가공식품이든 친환경 식품이든 지나치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일에 비신앙적 비윤리적 요소가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흙 1 g에는 38,000종의 박테리아가, 1 ml 하수에는 70종의 미생물이, 깨끗하게 양치질한 뒤라도 우리 잇몸에는 60종의 박테리아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마리의 생물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유익한 종, 무익한 종, 위험한 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이 땅과 우리 몸과 우리가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착각입니다. 그 한계를 알고 적절한 선에서 자제하고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도한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연계에는 독이나 약이나는 식의 흑백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 …기생충의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인간은 기생충을 적으로 규정하고 기생충을 박멸할 목적으로 구충제를 먹는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이다. 기생충 환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자들은 기생충의 감소가 알레르기성 질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 자연은 결코 무균 지대, 청정 지대가 아니다. 숲 속의 흙을 상상해 보라. 그곳은 온갖 기생충과 바이러스와 이름 없는 생명들이 들끓는 곳이다. 우리의 몸은 바로 그런 곳에 맞추어…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생충이 있는 지구가 기생충이 없는 지구보다는 훨씬 건강하다.” (김보일, 『국어 선생님의 과학으로 세상읽기』(휴머니스트, 2007), 28쪽)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자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유기농을 먹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신앙의 태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 먹고 사는 일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신자라도 주께서 주신 자신의 건강의 상태를 살펴 재정적 범위 안에서 깨끗한 먹을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고 입히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다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 감사히 받을 일입니다. 신자는 지금 이 땅에 70억 명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들 중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 많은 인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기농으로 그 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환경 친생명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자나 희생자 편에 서야 할까요? 무엇이든 지나친 주장은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유기농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식당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혹은 가난한 형제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유념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친환경 건강식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큰 경고요 교훈입니다. 저는 유기농을 먹는 신자는 각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하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식사 할 때는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제를 배려하여 일반 식품으로 같이 먹는 것이 바른 태도라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유가 있어 그런 교인이 없을지라도 더 가난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타락을 알아야 세상의 속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깊이 받아 오염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추구하되 이 땅의 한계와 현실을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음식물에 대한 안전이나 그로 인한 모든 질병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최악일 것입니다. 먹는 문화에 대해 건전해 보이는 대안들이 자칫 비신앙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4) 건전한 운동을 만들고 동참하자

현대과학은 과학기술의 남용에 의한 심각한 환경오염 및 파괴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체가 전체적으로 이루는 하나의 세계 즉 생태계를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 인간은 생태계의 보존에도 힘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을 통하여 오늘날 76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지구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현대과학의 노력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이 만든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곳곳에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가진 자연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여기저기서 얻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탐욕을 막기가 용이하지 않는 실정에서 온실가스, 기후 변화, 물 부족 문제 등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에 신자들이 각자의 소명들을 잘 살려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일들을 활발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자는 친환경 운동이나 생명 운동이 유행입니다. 이 운동들은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생태계 보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지지하고 동참할 만한 운동입니다. 온통 먹는 일에 마음을 쓰는 이 시대에 신자들이 마음을 써야 할 일입니다. 맛있고 많이 먹으려는 데 마음을 쓰면서 진행되는 현대인들의 잔인한 행동이 동식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을 이론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대부분은) 기독교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자연을 피조물로 격하하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판합니다. 또 기독교가 내세를 강조하여 이 땅에 대해 무관심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동양의 불교 등 범신론을 사상적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또 인간이 자연에서 진화하였기에 이 생태계를 인간의 조상이자 형제로 알아 소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환경과 생명 운동을 통해 진화론과 같은 과학의 권위를 높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직간접 비판을 겸손한 받으면서 우리를 돌

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도 성경의 눈으로 과학 혹은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운동들 뒤에 숨어있는 ‘과학이 성경을 판단하는 일’에는 동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상적 배경을 엄밀히 따지면 현재 환경이나 생명 운동은 기독교와 양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 환경운동이나 생명운동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 신앙으로 건전한 먹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되 우리의 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적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운실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강의 서두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을 주장하기 위해 쓰여진 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말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인간인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포이에르바하가 말한 정의를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바꾼 뒤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왜 먹고 하는 등의 먹을 것과 관련된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기본전제만 바꾸면 그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먹을 것과 관련된 태도를 통해서도 신자됨을 드러내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인 먹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도록 부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왜 먹고, 어떻게 먹고 하는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세상이 전부인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라면 모름지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